

농어촌과 토씨민이 하나되는 행사

바다낚시 대회 개최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권 범 노 | 낚시전문 칼럼니스트

낚시라고 하면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밝은 면보다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다. 그것은 낚시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척하면서 먹이가 되는 미끼 속에 바늘을 감추고 꼬드겨 입질을 하면 미끼 속에 숨겨진 바늘에 걸려 영락없이 물 밖으로 끌려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은 사기 행위에도 피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물론 여기서 피싱은 개인 정보를 낚아내다는 의미로 phishing라고 표기하지만 소릿값이 같기 때문에 역시 일반인들에게는 피싱이라는 소리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낚시는 단순히 물가를 찾아가 물고기를 낚는 행위라는 시각적 현상만 보면 단순한 즐길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낚시라는 행위를 통해 먹을거리를 만들어 생계를 잇기 시작한 선사시대의 수렵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현대인이 즐길 레포츠로서도 홀대를 받는 장르이기도 하다. 그러나 낚시를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대단히 유익하고, 경제적이며, 현대적인 레포츠로 국가 경영적 측면에서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싶다.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 레포츠도 변화

국민소득이 증대되면서 즐기는 레포츠의 유행도 많이 달라진다. 국민소득 5천 달러 시대에는 볼링이, 1만 달러를 넘기면 등산이 급증하고, 2만 달러를 넘기면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겨 4만 달러대에 진입하게 되면 해양레포츠, 수변레저로 관심이 쏠리면서 바닷가와 호수, 수상레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 경제와 레포츠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장차 4만 달러 시대가 올 것이라는 미래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걸맞는 국민레포츠 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금부터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며, 이미 이러한 움직임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가 화성 전곡항과 안산 탄도항을 세계적인 요트항으로 꾸밀 계획을 세우고, 탄도 요트산업공단을 조성하였다. 경상남도도 마산 창원 진해 일대를 남해 요트 레포츠 산업의 요람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해마다 이곳에서는 국제적 규모의 요트 전시회와 요트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어선을 이용한 바다낚시를 즐겨왔지만 장차 요트 같은 초호화 선상낚시가 인기를 끌게 될 것이다. 일부 낚시 동호인과 요트 피싱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제주 중문단지 요트투어가 유명한 여행지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 중문의 요트투어에서는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해외 바이어들도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정도로 요트 선상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고 있다.

낚시는 농어촌으로 가지만 즐길 수 있어

낚시라는 행위가 갖는 사회경제적 측면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더욱 친숙해 질 것이다. 낚시라는 행위는 골프나 등산, 바둑과 달리 물가에서 이뤄진다. 그리고 이러한 수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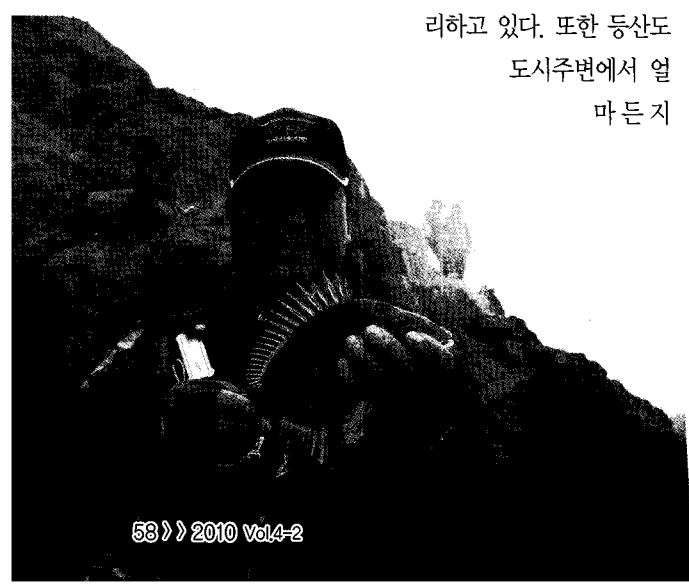
은 도심에서보다는 농어촌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골프장은 인위적 공간이며, 수도권이나 지방의 도심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등산도 도시주변에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우리나라 지형상 도시 주변에 얼마나 많은 명산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찾아본다면 이해가 더욱 쉬울 것이다. 또한 주요 도시는 이러한 명산을 끼고 형성된 지리적 영향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골프와 등산은 도시주변에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레저이지만 낚시는 농어촌으로 반드시 찾아가야지만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강변이나 낙동강, 금강변에서도 즐길 수는 있지만 낚시의 참맛을 즐기려면 농어촌으로 꼭 가야할 것이다. 봉어나 잉어, 배스는 저수지나 수로가 있는 농촌으로 가야 짜릿한 손맛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감성돔이나 우럭 같은 손맛과 입맛을 즐길 수 있는 바다 어종을 만나려면 포근한 어촌을 찾지 않으면 어렵도 없는 일이다. 강계의 왕자라고 불리는 쏘가리나 강계의 악동 꺾지는 맑은 여울이나 계류를 찾아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낚시인들의 낚시무대가 되는 저수지와 수로, 그리고 갯바위와 선상은 전국에 흩어져 있으며, 수온과 바람, 물때에 따라서 낚시하기에 좋은 장소를 찾아 떠나는 것이 낚시인들이다.

이러한 낚시인들의 동선과 낚시 장르별 특징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낚시인을 제3의 관광객으로 떠받들면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낚시인들이 이제 제대로 관광객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고나 할까? 낚시인들은 그동안 쓰레기나 버리고, 지역민과 마찰만 일으키는 천덕꾸러기로 낙인 찍혀, “우리지역으로 낚시오지 마세요”라는 살벌(?)한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었으니, 낚시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이 고올 리가 없다. 그러나 낚시인들이 농어촌을 찾았을 때 쓰레기를 버리고, 농로를 막아 마찰을 일으키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는 계도를 통해 많이 개선되었다. 이제는 낚시인들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알짜 관광객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낚시인들은 목직인 낚시장비를 풀세트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게 채비를 갖춰야하기 때문에 자가용 출조가 대세이기도 하다.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는 낚시인들은 기동성도 빨라 조황에 따라서 장소를 쉽게 이동하기도 하지만 차량의 공간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어떤 분석이 가능할까. 낚시인들의 경제적 측면은 바로 자가용이



라는 도구에서 더욱 증폭되는 것인데, 바로 트렁크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경차든, 중형차든, 화물차든 모두 화물탑재공간이 있기 때문에 낚시인들이 농어촌으로 낚시를 나섰을 때 돌아오는 차량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물을 그득하게 싣고 올 수 있다는 점이다. 낚시인들이 왔다 갈 때 쓰레기만 버리고, 물고기만 낚아서 돌아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트렁크에 묵직하게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채워 싣고 가게 할 것인가는 바로 그 지역의 지자체 관계자들의 몫이자 숙제이기도 하다.

낚시는 골프처럼 자연을 훼손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공간에서 노는 레저가 아니라, 대자연과 함께 호흡하면서 즐기는 레저이다. 등산과 큰 차이가 없지만 등산에 비해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보상심리가 매우 강하다. 뭔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고, 물고기를 낚았던 낚지 못했던 허전하게 되돌아가는 것에 어색한 부류라고 할 수 있다. 등산이 배낭지고 정상에 올라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돌아가는 행위라고 한다면 낚시는 뭔가 묵직한 것을 한 아름 안고 가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라는 것이다.

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바다낚시 대회 유치

낚시라는 레저는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오는 무소유의 레저가 아니라, 소유의 레저라는 점은 낚시가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오는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늘 빈손을 즐긴다. 그러나 뭔가를 취하지 않으면 허전한 낚시객들의 특성을 이용한다면 지역 농수산물을 한 아름 안겨 줄 수 있을 것이다. 낚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낚시행사는 2003년 예산군 수배 예당낚시대회가 처음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낚시대회와는 40년차가 넘지만 이런 행사들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순수성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예산군에서는 우리나라 최대의 저수지 예당지가 위치한 지리적 특징을 활용하여 낚시인을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연결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어 첫해부터 4회 500명, 6회 700명, 7~8회는 1천명의 낚시

인이 참가하는 낚시대회를 마련, 지역 특산물 홍보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예산의 광시한우는 낚시대회가 열린 이후 시장이 급성장하여 2003년 10여개의 한우전문점이 2010년 50여개에 달하는 한우전문식육식당이 성업하는 시장확장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게 현지민의 설명이다. 또 황성군에서도 민물낚시대회를 마련하여 황성의 한우, 더덕, 안홍편빵 홍보와 판매에 큰 효과를 이루었다.

장흥군은 국비, 도비, 군비 등 2차례에 걸쳐 총 50억을 투입, 장흥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하여 전국의 바다낚시 동호인들이 사계절 찾아들고 있으며 향후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낚시인들의 경제적 가치는 일반 관광객의 경제적 가치와는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일반 관광객은 관광지를 찾을 때 시즌이 있다. 봄이나 가을, 물론 피서지라면 여름철에도 많이 방문을 한다. 그러나 연중 1~2회에 그치고 마는 것이 일반적인 관광지이다. 그리고 체류형 관광이 아니라 대부분 경우형 관광이며, 일일 지출금액도 2~5만원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낚시객들은 다르다. 우선 시즌이 따로 없다. 계절별로 다양한 어종이 낚이는 삼면의 바다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중 10~20회로 거의 매주 낚시터를 찾는



사람들도 많다. 대어를 낚으면 그 짜릿한 기분에 다시 찾고, 허탕을 치면 반드시 대어를 낚겠다는 오기로 다시 찾는 게 낚시인들이다. 게다가 채류형이라 속식은 물론 주유, 음료, 담배, 주류 구매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낚시인이 이제는 환경 파수꾼 역할에 앞장서

낚시를 즐기는 인구는 정부 추정 570만 명이다. 오래전 낚림에서 조사했을 때의 추정 인구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아무튼 많은 국민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고, 낚시는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한 국민 레저가 되었다. 골프나 등산, 바둑 등에 비해 사철 우리의 농어촌을 찾는 낚시인들은 이제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저수지나 수로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가 하면, 갯바위나 방파제의 쓰레기 수거활동,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범국민 환경보호 캠페인, 범국민 자연보호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의식이 고취됨과 더불어 낚시인들의 자발적 환경보호 활동 참여는 눈부시게 늘어났다. 특히 생활쓰레기의 종량제 배출제도의 시행 이후 쓰레기 수거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농어촌에서의 무단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반영한다면 낚시인들의 자발적 감시행위와 쓰레기 수거활동은 농어촌 지역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낚시인들이 농어촌으로의 출조에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득은 역시 농어촌 지역의 지역경제 유발효과일 것이다. 바다의 경우 일반 관광객의 성수기와 비수기 활동이 극명한 반면 낚시 출조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따라서 바다낚시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의 개발 및 지원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순수 출조비용에 추가하여 미끼 구입, 출조 전 현지 채류형 민박 및 펜션이용객 증대, 출조 후 지역 수산물의 판매 등을 종합하면 낚시객을 유치하는 바다낚시대회는 엄청난 이득을 챙겨 줄 것이라



고 판단된다.

실제로 바다낚시 선비가 통상 5만원 내외로 지출되고, 미끼 구입비 2~3만원, 채비 구입비 2~3만원, 숙박비 4~8만원, 식비 2~3만원, 주유 및 음료, 담배 등 기호품 구입비로 5~8만원을 지출하며, 이 밖에도 다양한 소비활동이 이뤄지는 것이 바다낚시이다. 이러한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농수산물을 홍보한다면 추가로 10만원 내외의 지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지게 되며, 지역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제는 낚시대회가 낚시단체에 의한, 낚시단체를 위한, 낚시단체의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바다낚시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어촌 어항이라면 반드시 어떤 이익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거쳐 낚시대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낚시대회가 과도한 참가비 징수, 과도한 시상금, 명분 없는 대회 개최 등으로 인해 사행성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지자체가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순수한 바다낚시대회라면 참가비가 많을 이유도 없고, 시상금이 반드시 많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낚시인들이 일반적으로 출조하는 지역이라면 축제 분위기만 조성해도 충분히 낚시대회로써의 명분을 살릴 수 있으며, 대회의 참가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개최가 가능하며, 시상 또한 상금이나 상품이 아니라 지역 농수산물을 시상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